

한국판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글로벌 녹색전환 모델화

Jeyong Yoon

President,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그린뉴딜이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는 한국판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프라와 에너지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린뉴딜은 크게 세가지 방향에서 추진될 계획이다. 첫째, 시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생활환경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셋째, 경제의 녹색전환을 주도할 녹색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한편으로는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여 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겠다고 하였다. 그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밀착형 생활SOC,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등 국가균형발전에 추가하여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에 두어 모든 국민의 체감을 높이고자 한다.

그간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린뉴딜을 통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뿐 만아니라, 성공적인 한국판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글로벌 녹색전환의 모델로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녹색전환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특히 개도국 ODA지원 시 녹색전환분야 예산을 상향하고 한국형 그린뉴딜 요소의 현지화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도국 현지에 적합하고, 개도국 주민의 참여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가 가능한 적정 기술 패키지(장비 및 기술 등 하드웨어와 제도 등의 소프트웨어)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